

“타이거즈 왕조 재건 위해 개막전부터 달리겠다”

KIA 정재훈 투수코치 “마운드 고비 속 무사히 넘긴 한 해”
“신예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존 선수들과 경쟁 이끌 것”

‘마운드’가 KIA 타이거즈의 연패 도전 전면에 선다.

KIA는 올 시즌 선발진의 줄바꿈이라는 초대형 약재를 이겨내고 통합 우승을 이뤘다. 황동화와 김도현이 선발에서 급한불을 꺼졌고, 탄탄한 불펜진이 승리를 지키면서 우승으로 향할 수 있었다.

KIA에서 첫 시즌을 ‘우승 코치’로 마무리한 정재훈 투수 코치는 “우승하면 좋다. 진짜 좋은데, 사실 얼마 안 간다. 다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올해 또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투수 코치로 7번째, 올 시즌은 유난히 고비가 많았다.

정 코치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제임스 네일까지 다치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동하나 도현이가 티 안 나게 잘 때웠다. 팀이 흔들리지 않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김도현은 지난 2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구상에는 없던 전력이었다.

정 코치는 “제대 후에 2군 쪽에서 경기하는데 구위도 경기력도 좋아졌다. 일단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어떤 보ץ, 어떤 상황이 나가더라도 본인 역할을 해줬다. 기회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본인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탁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통합 우승을 이끈 ‘에이스’ 네일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정 코치는 “다행히 다발성 골절은 아니었는데 트라우마 문제가 있었다. 마운드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회복을 빨리했고, 회복 후 자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팀에 대한 헌신, 한국시리즈를 같이 뛰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

다면 쉽지 않다.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다”고 말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헌신을 다한 선수들로 만든 우승이지만 벤치의 인내도 컸다. 부상 약재에도 정 코치와 이범호 감독은 멀리 보고 천천히 시즌을 풀어나갔다.

정 코치는 “시즌을 하면서 5명으로 선발이 돌아갈 수 없다. 캠프에서 6, 7, 8번째 선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선수들 준비가 잘 됐다. 또 프런트에서도 외국인 선수 문제에 대해 바로바로 대처해줬다. 그게 우승 원동력이 됐다”며 “선수들 능력이나 구성은 갖춰져 있는 팀인데, 시즌 초반 구위나 능력이 막판까지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불펜은 좋다고 몰아 쓰거나 특정 선수한테 모든 걸 짊어지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때부터 그 부분을 고민해서 스캐줄을 짜다. 감독님과 상의해서 좋은 선수가 많다는 것을 이용했다. 역할을 나눠서 해야 오래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시리즈까지 구위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은 선수들로만 하면 1-2년은 버틸 수 있다. 보통 감독님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범호 감독님은 오래 했던 팀이고, 선수 자체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투수파트 코치가 이야기한 것을 잘 받아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했다”고 돌아봤다.

KIA의 운영 방안은 장형식의 보ץ 선수로 군복무를 앞두고 있던 강효종을 선택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선발 자원들로 차근차근 강팀을 만들겠다는 구상. 장형식의 빈 자리에 좋은 선수들도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KIA는 최근 키



KIA 타이거즈의 정재훈(오른쪽) 투수 코치가 부상 없는 경쟁을 통해 2025시즌 개막전부터 연패를 위해 달리 달릴 계획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움과의 트레이드로 마무리 출신 조상우를 영입했다. 기대하는 자원도 많다.

정 코치는 “솔직히 올 시즌에는 (최)지민이를 안 쓴 느낌이다. 안 좋았던 시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더 잘하려고 할 것이다. 대표팀에서 자신감도 얻은 만큼 현식이 자리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올해 성장한 유승철, 김기훈도 있고 신인급에서도 좋은 선수가 있어서 이닝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동화와 김도현도 불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앞문부터 막은 뒤 불펜진을 다질 생각이

다. 정 코치는 “두 선수가 현식이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발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중간이 빠졌다고, 선발을 빼서 메우면 다시 선발이 헐거워질 수 있다. 시범 경기 막판까지 선발로 준비시킬 생각이다”고 말했다.

왕조 재건 목표를 위한 마운드 키워드는 ‘부상’과 ‘경쟁’이다.

정 코치는 “좋은 자원이 계속 유입되고, 육성이 돼야 왕조 단어가 완성되는 것이다. 캠프 때까지 절대 부상이 없어야 한다. 1.5군, 2군에서 좋은 선수들이 연습경기나 시범경기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준

비하는 기존 선수들과 달리 오버페이스를 하다, 중요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겠다”며 “올해 와서 감독님이랑 이야기한 게 있다. KIA가 최근에 초반 성적이지 못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여름에 엄청 달리는 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초반에 100% 모습을 낼 수 있게 준비했다.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조절하면 더운 여름을 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 부상 조심하고, 기존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을 이끌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개막전부터 달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MLB 신인보다 낫다

프리미어12 활약상 ‘3위’...클리블랜드 1지명보다 앞서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김도영(사진)이 11월 끝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IBC) 프리미어12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 ‘톱3’에 들었다.

WSBC는 2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해 프리미어12를 중계한 엘릭스 코언이 선정한 프리미어12 선수 톱10’을 소개했다.

이 순위에서 김도영은 3위에 이름을 올려 올해 프리미어12에서 보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1위는 알론소 가이탄(멕시코), 2위는 맷 쇼(미국)였다.

가이탄은 올해 프리미어12에서 19타수 10안타를 치며 타율 0.526을 기록했다. 쇼의 경우 34타수 14안타, 타율 0.412에 홈런 2개, 14타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비록 우리나라가 슈퍼라운드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17타수 7안타, 타율 0.412,

홈런 3개와 10타점의 성적을 내며 분전했다. 올해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 지명된 호주의 트레이비스 바자나는 이 순위 5위였다.

바자나는 올해 7월 클리블랜드와 계약금 895만 달러에 계약한 ‘귀한 몸’으로 올해 프리미어12에서는 타율 0.263의 평범한 성적을 냈다.

김도영은 지난 21일 역시 WSBC가 소셜 미디어에 소개한 마이클 클레어 메이저리그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의 프리미어12 올해 대회 ‘톱10’ 선수 순위에서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올해 KBO리그에서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 등을 기록하며 최연소 30-30을 달성,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와 3루수 골든글러브 수상 등 팀과 개인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연합뉴스

EPL 감독 출신 포엣, 전북 재건 중책 맡는다

선덜랜드·그리스 국가대표 맡아
“K리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
선수·팬과 함께 만들어 갈 것”

‘난파선’으로 전락한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덜랜드를 지휘했던 거스 포엣(사진) 감독에게 ‘거함’ 재건의 중책을 맡긴다.

전북은 ‘팀의 재도약과 새 시대를 함께 할 파트너’로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엣을 최종 낙점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우루과이 출신의 포엣 감독은 EPL 첼시FC와 토트넘에서 선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리즈 유나이티드(수석코치)와 토트넘 홋스퍼(수석코치)에서 코치로 지도 경력을 쌓았다.

이후 브라이턴(잉글랜드 2부)에서 감독직을 시작한 포엣 감독은 선덜랜드(EPL) 등 잉글랜드를 비롯해 AEK 아테네(그리스), 레알 베티스(스페인), 보르도(프랑스) 등 다양한 리그와 클럽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그리스 국가대표팀(2022-2024년)을 이끌었다.

이름값과 경력에서 K리그 역대 최고 수준의 외국인 사령탑이라 할 만하다. 발레리 니콜리시(부천·현 제주 유나이티드), 세놀 귀네슈(FC서울) 감독에 비견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포엣 감독이 유럽에서 선수뿐 아니라 지도



자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온 점을 높게 샀다.

포엣 감독은 선수 시절 해외 리그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다.

지도자로서도 시련을 겪으며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 유럽 빅리그 클럽을 꾸준히 지휘했고, 그리스 대표팀에서는 약체로 분류되던 팀을 유로 2024(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다.

포엣 감독과 함께해온 ‘사단’이 ‘전주성’으로 동행한다.

2009년 브라이턴 시절부터 15년간 함께한 마우리시오 타리코 수석코치, 불가리스 파나요티스 피지컬 코치, 아틀린 디에고 포엣 분석 코치가 함께 K리그 무대를 밟는다.

전북은 포엣 사단이 국내 무대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선수단과 사이에서 가고 구실을 할 정조국 코치와 황희훈 골키퍼 코치도 선임했다.

K리그1 최다 9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은 지난 시즌 끝없는 부진 끝에 정규리그를 10위로 마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물리는 망신을 당한 끝에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다.

포엣 감독에겐 전북 선수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다시 우승 경쟁에 뛰어든 팀으로 재건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포엣 감독은 “아시아와 K리그 무대는 감독으로서 새로운 도전이다.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수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소통과 신뢰가 전술, 전략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팬들에게 신뢰받아 전북이 K리그 최고의 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포엣 감독은 주말 입국해 클럽하우스 점검하고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

내년 1월 2일 시작하는 태극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새 시즌 구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전남, 브라질 출신 공격 호난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브라질리언 몬스터’ 호난(RONAN David Jeronimo·사진)으로 화력을 강화했다.

전남은 지난 24일 브라질, 포르투갈, K리그, 중국 갑급리그 등 다양한 리그를 경험한 브라질 출신의 호난을 새로운 공격수로 영입했다.

195cm, 88kg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호난은 연계 능력과 득점력을 고루 갖춘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전방 압박, 위치 선정,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다.

새로 전남 지휘봉을 든 김현석 감독은 호난으로 공격적인 팀 컬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2014년 그레미우(브라질 세리에A)에서 데뷔한 호난은 이듬해 포르투갈 리그의 AD산호렌세로 이적했으며 이후 리오 아베 FC(포르투갈 1부), 바르짐SC(포르투갈 2부), CD 톤텔라(포르투갈 1부) 등을 거쳤다.

호난은 2021/2022시즌에는 리오 아베에서 팀의 2부리그 우승과 승격을 이끌었다.

유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서울이랜드를 통해 K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호난은 30경기 7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했다.



올시즌 중국 갑급리그의 연패 톱당으로 이적한 그는 27경기에 나와 12득점 2도움의 기록으로 팀 공격의 최전방에 섰다.

K리그로 복귀한 호난은 “K리그2 MVP 출신의 발디비아와 함께 뛰는 게 기대된다. 그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10골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구단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괴물 스트라이커’를 영입한 김현석 감독은 내달 2일 선수단을 소집해 2025시즌을 위한 동계훈련을 시작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